

조선시대 민간생활상 담은 한글일기

南平 曹氏의 한글수택본 「병자일기」

조선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춘성부원군 市北 南以雄의 부인인 정경부인 南平 曹氏가 병자호란 발발년도인 인조14년(1636) 12월부터 인조18년(1640) 8월까지 기록한 한글 필사본 일기「丙子日記」의 전문 및 주석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예전사판)

민간의 부녀자가 쓴 한글일기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대규모 작품이라는 점에서 발견 당시 큰 주목을 끌었던 이 「병자일기」는 원래 충남 공주의 후손들이 세전하여 소장하던 것을 충남문화재단전문위원 김영한씨가 1989년에 처음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그 존재가 알려졌던 것인데, 이번에 전현대(경기대)·박경신(울산대) 두 교수의 주석작업을 통해 일반에도 그 전모를 공개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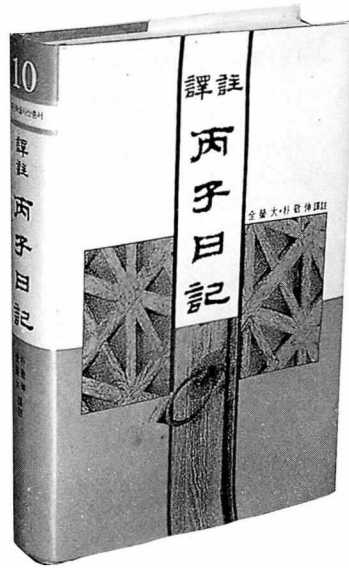
이 「병자일기」는 특히, 비슷한 시기의 「산성일기」나 그보다 약간 앞선 「계축일기」가 어느 궁녀의 의해 씌어진 궁중문학적 성격이 짙은 데 반해, 私家의 60대 부녀자가 병자호란 당시 자신과 가족들의 피난기와 생활상을 보고 느낀대로 꼼꼼하게 서술한 민간위주의 기록이라는 점에 큰 의의를 평가받아 왔던 것으로, 이번의 역주본 출간을 계기로 관련학계의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작자의 남편인 남이응은 당대 정치권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병자호란 때는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했고, 소현세자가 심양에 인질로 잡혀갈 때는 배행하는 신하들의 우두머리로 세자를 모시고 1년반 동안 청나라에 억류되었으며, 귀국 후에는 대사헌·형조판서·한성판윤·예조판서 등을 역

지난 1989년 처음 학계에 보고돼 그 존재가 알려졌던 「병자일기」는, 비슷한 시기의 「산성일기」나 그보다 약간 앞선 「계축일기」가 궁녀에 의해 씌어져 궁중문학적 성격이 짙은 데 반해, 병자호란 당시의 한 사대부집 부녀자가 당대의 민간생활상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임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병자호란을 전후한 당대의 생활상이 소상히 기록돼 있는데, 가령 정치적 사건일 경우 「인조실록」의 기사와 대조해보면 그 기록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정확도와 성실성이 특히 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경우에는 「실록」에도 나타나지 않은 이면적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날씨 하나를 기록하는 데도 그저 「맑았다」고 기록하기만 한 날은 거의 없이 「아침에는 맑았다가 늦게는 흐려져서 저녁에는 비가 왔다」는 식으로 기록했고, 천둥번개가 치고 일식월식한 사실까지 빠짐없이 언급할 정도로 기록이 치밀하다.

한지에 해서체로 필사한 상태로 전해내려오던 것을 ①활자화한 원문 ②현대어로 옮긴 부분 ③주석 ④필사본의 영인 등으로 구성된 책으로 펴낸 이 「병자일기」의 의의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생활사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큰데, 350여년전 조선시대의 삶의 풍속도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거기에는, 궁궐의 역모사건이나, 조정의 대신들이 청나라에 적자가 아닌 서자나 손자를 볼모로 보내 일시에 삭탈관직당하는 이야기에서 보는 것 같은 정치적 삶의 풍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작자가 몸담고 있는 사대부집안의 세세한 일상사, 그리고 그 사대부집안을 둘러싸고 서로 교섭하며 어울려 사는 서민계층의 삶의 풍속도까지 함께 그려져 있어 우리들의 흥미를 잡아끈다.

둘째, 역사연구의 보조자료적 가치 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는 작자의 남편이 당대 권력층의 최고 핵심부에 있던 벼슬아치였던 데 힘입은 바 크다. 이 일기에는 병자호란을 전후한 당시 정치계의 주요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등

장하고 있으며, 그 인물들과 관련한 사건들의 기록의 정확성 또한 「실록」에 맞먹을 정도여서 사사로운 일기의 역사적 객관성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는 이 일기가 17세기 중엽의 한글필사본으로 비교적 구어체에 가깝게 서술돼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자료로도 그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령, 작자의 개인적 성향이 있었는지 당시의 관행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합용병사자를 받침으로 사용할 때 요즘과는 좌우가 반대되게 표기하고 있다든지, 존칭어미인 「시」의 사용이 대단히 불규칙한 점 등이 눈에 띄고 있어 현전자료가 거의 없는 17세기 중엽 한글생활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넷째로는 문학적 의의를 들을 수 있는데,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私家일기라는 점 이외에도 이 작품은, 예수를 넘긴 작자의 완숙한 경륜과 두 아들과 한 며느리를 앞세운 개인적 비극, 남편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 등이 세밀하고 꼼꼼한 문체 속에 담담하게 표현돼 있어 수필문학사의 한 걸작으로 자리잡을 가능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된다.

예전사 / A5 / 622면 / 18000원

편집·디자인 실무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EDITORIAL DESIGN SERIES

D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저자/김두식

크라उन판 403페이지

제 1 권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저자/김두식
크라उन판 403페이지

EDITORIAL DESIGN SERIES

D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저자/김두식

크라उन판 373페이지

제 2 권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저자/김두식
크라उन판 373페이지

- 특징
- 1 원전 실무 위주의 집중분석.
 - 2 원고지 사용 요령부터 제본까지 완벽한 실무 해설.
 - 3 풍부한 사진과 부분 원색인쇄로 읽고 보는 즉시 이해 가능.
 - 4 전산사식기, 전산편집기(DTP)의 기능과 특성을 기종별로 분석.
 - 5 어깨너머 배운 편집·디자인 실무를 완전히 체계 잡을 수 있도록 구성.
 - 6 초보자는 물론 경력자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지침서.
 - 7 보다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디자인 실무를 완벽히 분석.

지금 유명 서점과 디자인용품 판매소에서 시판 중!

3, 4, 6, 12개월에 걸친 편집·디자인 실무교육 교재로 활용 가능토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서출판 **타래** 서울·마포구 상수동 271 우성 BD 201호
전화 325-1945 · FAX 337-5239